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 (I): 연령에 따른 변화

곽금주

오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과 반사회적 행동과 청소년기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예비연구로, 먼저 각 변인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걸친 남녀 11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과 도덕적이탈의 3개 하위요인이 발견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에 따라 성별, 학년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났으며, 도덕적 이탈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이 중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기규제 효능감'이 가장 설명력이 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있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일상사의 사건과 자기자신의 기능 수준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며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이다. Bandura(1986)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 환경, 행동의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이 세요인이 서로의 결정인자로 작용한다는 상호결정론을 제시하였다.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인지적능력, 대리학습능력,

자기조절능력, 자기반성 능력이 있는데, 인지적능력이란 정보를 처리하고 앎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대리학습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이란 자기의 내적표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자신에게 동기를 주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반성이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사고과정에 대해 생

본연구의 일부는 오산전문대학 해외교수 파견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신 Stanford 대학 심리학과 Bandura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반성에는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자기효능감으로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신념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내적요인 또는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신념인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와 유사하나 일반화된 신념이 아니라, 특정상황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신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것은 자아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아개념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자기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나 영역에 대한 자기의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 자기효능감은 자기존중감과도 유사하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자기존중감이라면, 자기효능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란 다차원적인 것으로, 여러 활동 영역에 걸쳐 측정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시기의 자기효능감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들이 포함된다 (Bandura, 1997). 학업성취 효능감 (self-efficacy for academic achievement), 주위 사람의 도움에 대한 효능감 (self-efficacy in enlisting social resources),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효능감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여가시간에 대한 효능감 (self-efficacy for leisure time skill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자기규제 효능감 (self-regulatory efficacy), 주위사람의 기대 만족에 대한 효능감 (self-efficacy to meet other's expectations), 사회적 효능감 (social self-efficacy), 자기주장 (self-assertive efficacy), 부모 및 주변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 (self-efficacy for enlisting parental and community support)에 관한 모두 9개 하위영역이다.

한편으로 자기효능감은 자기규제 기제에 의해

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기능수준에 통제력을 행사하며, 자기규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자기 자신을 능력있다고 판단할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 규제, 조절, 개입하게 된다. 자기규제 기제는 도덕 행위에도 작용하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 내적 도덕적 표준을 설정하여 자신을 규제 및 제재한다. 그러나 자기규제에서 벗어난 내적 기준의 이탈은 도덕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허락하게된다

도덕적 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은 그 행위 보다는 도덕적 사고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합리주의적 편향과 방법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의 규제는 도덕적 추론 이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사람들이 도덕적 표준에 일치해서 살아가게 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표준(moral standards)이란 직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타인에 의해 모방된 자기 평가적 표준 등의 정보로부터 형성되며, 일단 형성되면 행동의 안내자이자 제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즉 도덕적 표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는데 안내자 또는 억제자 역할을 한다. 즉 이것은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치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어떤 행동이 자기비난을 준다면 이는 도덕적 표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이를 금하게 된다.

사회인지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주요 하부기능을 통해 작동하는 자기규제 체계 안에서 도덕적 대리자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자기감시 (self monitoring), 판단기능, 자기반응 기능의 세 가지로 자기감시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연습하는 첫 단계이다. 그 다음, 내적 표준과 주변 상황에 비추어 행동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을 거쳐 자기반응적으로 된다. 유해 행동에 대해 내적 도덕적 통제가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유해행동을 하게되는데 이를 위한 자기 규제 체계에 여러 기제가 있

다.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은 해를 주는 행동자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일단 그 행동을 정당화하고 나면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의 비난을 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데는 다음과 같은 기제들이 작용한다.

먼저 도덕적 정당화 (moral justification) 기제에 의해, 해를 끼치는 행동은 사회적 도덕적 목적에 그것을 다시 맞추어 넣어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공격행동이 명예나 명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언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기저가 되는 사고 패턴들을 형성한다. 여러 행동들이 그것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외양을 가지게 된다. 완곡한 언어 표현(euphemistic language)은 비난받을 행위를 가려 덮어주고 그 행위에 존경할 만한 지위를 주기도 한다. 정화되고 우회된 언어들을 통해 파괴적 행위는 은화해지며 행위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풀어날 수 있다. 완곡한 언어표현이 지니는 비억제적 힘에 대한 한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같은 행동이 헌신적이라고 명명될 때 보다 공격적이라고 명명될 때 피험자는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였다 (Diener, Dineen, Endresen, Berman, & Fraser, 1975).

행동은 비교되는 것에 따라 다른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 이로운 비교 (advantageous comparison)를 적용하여, 더욱 비난받을 만한 행위들과 비교하여 파괴적 행위를 양호하고 해로운 결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적 표현, 행동비교 등을 통해, 해를 끼치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인지적 변환을 하는 것이 이탈(disengagement)의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기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과 그 결과에 관한 대리적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서 와해가 일어날 수 있다.

책임의 전이(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억압이나 타인의 독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Andrus, 1965). 자신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자기비난도 적어 질 수 있다.

개인이 행한 해로운 행동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에 의해 모호해 질 때 도덕적 통제력이 약해지게 된다. 즉 각 개인의 행동은 무해한 영향을 주나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그 책임이 분산되기 쉽다(Kelman, 1973). 대체로 집단 결정, 집단행동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집단결정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그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 행동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 보다도 집단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람들은 더욱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Bandura, Underwood, & Fromson, 1975).

또한 자기 제재적 반응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행동결과에 대한 무시나 왜곡(disregarding or distorting the consequences of action)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사람들은 행동의 잠재적 이득에 관한 정보를 먼저 상기하고 그것의 악영향은 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Brock & Buss, 1962). 이와 같이 선택적 무관심이나 인지적 왜곡 뿐 아니라 악영향에 관한 증거에 대한 불신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무시, 축소, 불신, 왜곡하게 되면 자기비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탈(disengagement)의 마지막 세트는 해로

운 행동을 가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가해자가 그들이 가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달라진다. 즉 타인을 한 인간으로 지각하게 되면 감정이입과 대리적 정서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인간이하라고 보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민감성도 적어지고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자기비난은 상대방 사람이 인간적인 속성이 부족하다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에 의해 무디어 질 수 있다. 인간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보다 더 거칠게 다루는 실험연구가 있다 (Bandura 등, 1975). 즉 비인간화는 상이한 사고패턴을 형성하게 하는데 인간이하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하는 처벌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당화를 하지만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처벌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 유해한 행위를 하게 된 죄없는 희생 양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비난의 귀인(attribution of blame)에 의해 도덕적인 이탈(moral disengagement)이 일어날 수 있다. 강제적인 환경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자신을 면죄하게 된다. 매우 어린 아동에게 조차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이와 같은 요인을 사용하는데 아주 능숙하다 (Darley, Klosson, & Zanna, 1978).

이와 같은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에 대한 연구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Pastorelli (1996)는 여러 상황과 대인관계에서 유해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것은 앞에서 설명된 8개의 기제, 도덕적 정당화 (moral justification), 완곡한 언어 표현(euphemistic language), 이로운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책임의 전이(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행동결과에 대한 무시나 왜곡(disregarding or distorting the consequences of action), 비인간화(dehumanization), 비난의 귀인(attribution of blam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를 통해 제작된 것이다. 이들은 높은 도덕적 이탈을 지닌 학생이 더 자주 화를 내고 유해한 행동을 하며 공격적인 사고 패턴을 나타내며 유해 행동에 대한 자기 억제력이 약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효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화과정에서 사회적, 도덕적 표준을 특정 행동을 행하거나 또는 금하는데 지표로 삼는다. 즉 나름대로의 어떤 표준을 가지고 스스로 벌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제재는 자기규제가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분리되는 심리적 과정을 거쳐 활성화된다. 개인적 통제는 가치로운 목적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해 이탈되게 된다. 낮은 학업적 효능감과 자기규제 효능감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도덕적 제재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각된 자기 규제의 비효능감은 학업적 추구에 갈등을 일으키는 해로운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인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Bandura, 등, 1996).

특히 청소년기란 생물학적인 변화 뿐 아니라, 학교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위협이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달려 있다.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기에서 새로운 환경요구와 심리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스트레스에 스스로 약하고

역기능적이라는 비효능감을 가지게 된다(Bandura, 1997). 따라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부적응 현상(예컨대 반사회적 행동이나 우울과 같은)과 자기효능감 및 도덕적 이탈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기의 부적응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이전의 그 예비적 단계에 해당한다. 즉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먼저 규명하고자 하며, 이것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대상자

서울과 근교의 3개의 중학교와 4개의 고등학교로부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30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남학생 601명과 여학생 581명 모두 119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척도(Bandura, 1995)는 모두 5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학업성취 효능감, 주위사람의 도움에 대한 효능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효능감, 여가시간에 대한 효능감, 자기규제 효능감, 주위사람의 기대 만족에 대한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자기주장, 부모 및 주변사람의 지지에 대한 효능감에 관한 모두 9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도덕적 이탈 척도: 도덕적 이탈척도는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가 개발한 것으로 8개의 하위영역 각각에 4문항씩 모두 36문항에 3점 likert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하위영역은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 완곡한 언어표현(euphemistic language), 이득이 되는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책임전이(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행동결과에 대한 무시나 왜곡(disregarding or distorting the consequences of action), 비인간화(dehumanization), 비난의 귀인(attribution of blame) 등이다.

3. 반사회적 행동 척도: 반사회적 행동 척도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로 규정하고(곽금주, 문은영, 1993), 곽금주(199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화할 수 있으며, 거짓말, 도둑질, 방화, 음주, 약물 사용등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95이다.

결과

먼저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 척도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실시하여 그 반응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사각회전에 의한 주축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효능감 척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요인이 밝혀졌다. 첫 번째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으로 여러 학과목을 숙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학습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으로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 대인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이외,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또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문항도 포함된다. 세 번째 요인은 자기규제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으로, 음주 약물 성행

동 및 일탈행동과 같은 위험행동에 휩쓸릴 수 있는 친구의 압력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 그 믿음, 또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능감 (self-efficacy to gain social support)으로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 요인은 신체적 운동에 관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ies)으로 자신이 체육과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또 운동을 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대한 자신의 능력감에 관한 문항들이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93,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86, 가지규제 효능감이 .79,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71, 그리고 신체적 운동에 관한 자기효능감이 .86이었다.

도덕적 이탈 척도의 경우 3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지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 타인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행동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치거나 떠미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벌레같이 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 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4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 (advantageous comparison & distortion of injurious consequences)'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나쁜 행동과 비교해서, 그리고 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과정에 의한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에 비하면 나쁜 일이다', '다른 사람을 째려거리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5이다. 세 번째 요인은 '책임감의 분산과 전이(diffusion and 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로 책임감을 다른 압력을 가진 것으로 대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과정에 의한 것이다. '만약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의 비행이라면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다', '친구의 압력에 못 이겨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이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55이다.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듯이 자기효

표 1. 각 요인의 상관관계

	Mean(SD)	2	3	4	5	6	7	8	9
1. 학업적 자기효능감	3.78(0.94)	.67***	.47***	.64***	.30***	-.03	-.18***	-.08**	-.23**
2. 사회적 효능감	3.96(0.94)		.30***	.57***	.40***	.04	-.08**	-.00	-.04
3. 자기규제	5.17(1.15)			.48***	.15***	-.10***	-.30***	-.09**	-.44***
4. 사회적 지지	3.97(1.01)				.25***	-.13***	-.18***	-.10***	-.20***
5. 신체운동	4.27(1.57)					-.03	-.04	-.08**	.11***
6. 도덕적 정당화	2.13(0.36)						.34***	.43***	.24***
7. 이득이 되는 비교	1.46(0.28)							.30***	.34***
8. 책임감 분산	2.00(0.36)								.13***
9. 반사회적 행동	0.80(0.57)								

능감과 도덕적 이탈간에는 부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에 대한 왜곡'과 '책임감의 분산 및 전이'와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효능감은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에 대한 왜곡'과 부정적 상관을, 그리고 '자기 규제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효능감'은 세 개의 도덕적 이탈 하위영역과 모두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다. '신체활동 효능감'은 '책임의 분산 및 전이'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차원에 있어서 학업적 효능감, 자기 규제 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관한 효능감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22$, $r=-.44$, $r=-.20$, $p<.001$). 그러나 신체운동 효능감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r=.11$, $p<.001$). 도덕적 이탈의 세 하위영역에서는 모두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24$, $r=.34$, $r=.13$, $p<.001$).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이탈,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의 각 영역에 있어 성별과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자기효능감

'학업적 효능감'에 있어서, 성별 ($F_{1,1156}=7.15$, $p<.01$)과 연령($F_{5,1156}=3.00$, $p<.05$)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여학생($M=3.87$, $SD=.97$)이 남학생($M=3.71$, $SD=.90$)에 비해 학업적 효능감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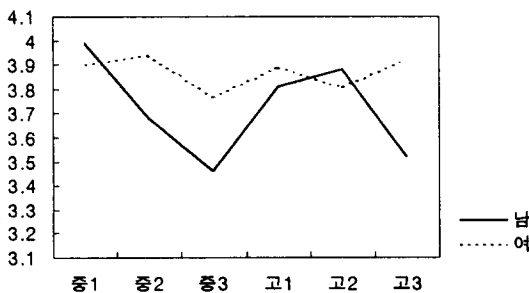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적 효능감에서 상호작용효과

등학교 연령에서 비교적 높았다.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F_{5,1156}=2.26$, $p<.05$), 여학생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에 있어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효능감'($F_{1,1165}=36.77$, $p<.001$)과 '신체적 운동 효능감'($F_{1,1179}=57.59$, $p<.001$)에 있어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여학생($M=4.13$, $SD=.95$)의 사회적 효능감이 남학생($M=3.80$, $SD=.90$)보다 더 높은 반면, 남학생($M=4.57$, $SD=1.50$)이 여학생($M=3.89$, $SD=1.57$)에 비해 '신체 운동 효능감'이 더 높았다.

'자기규제 효능감'($F_{5,1172}=8.20$, $p<.001$)과 '사회적지지 효능감' ($F_{5,1170}=6.04$, $p<.001$)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이 두 영역의 효능감이 낮아졌다.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의 세영역 중, '도덕적 정당화'($F_{5,1144}=18.12$, $p<.001$)와 '책임감의 분산 및 전이'($F_{5,1142}=2.70$, $p<.05$) 영역은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학년에 따라 점차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에 대한 왜곡' 영역에서는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F_{1,1106}=18.12$, $p<.001$), 남학생($M=1.49$, $SD=.28$)이 여학생($M=1.42$, $SD=.28$)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책임감의 분산 및 전이'영역에서는 여학생($M=2.04$, $SD=.35$)이 남학생($M=1.96$, $SD=.36$)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_{1,1142}=13.72$, $p<.001$). 세 개의 영역 모두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도덕적 정당화' 영역($F_{5,1144}=3.84$, $p<.01$)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교 연령에서는 연령에 따라 점차로 점수가 높아져 갔다. 여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 걸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로 점수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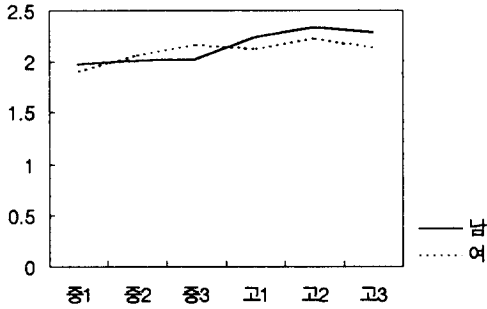


그림 2. 도덕적 정당화에서 상호작용효과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 영역($F_{5,1106}=4.40, p<.001$)에서는 남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연령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교 연령에서는 1학년과 3학년에 점수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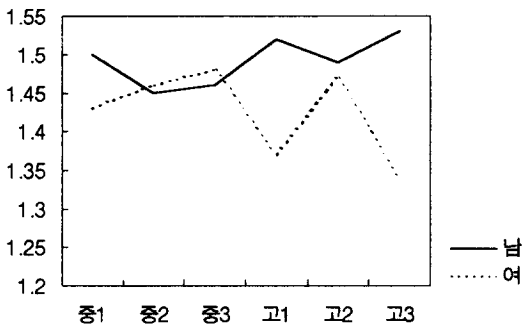


그림 3. 이로운 비교 및 결과왜곡에서 상호작용효과

‘책임감의 분산과 전이’ 영역($F_{5,1142}=6.70, p<.001$)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학년에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낮은 점수를 보이나,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학생에 있어서는 중학교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에서 1학년과 3학년에 점수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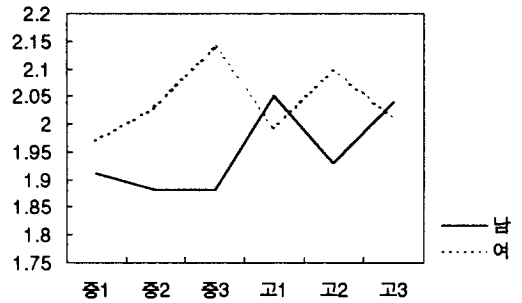


그림 4. 책임감 분산 및 전이에서 상호작용효과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학년($F_{5,1104}=13.80, p<.001$), 성별($F_{1,1104}=86.43, p<.001$), 그리고 상호작용효과($F_{5,1104}=5.75, p<.001$)가 유의미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았다. 남학생에 있어서 학년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에서는 학년에 따라 점차 증가하나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다섯 개의 자기효능감 하위영역과 세 개의 도덕적 이탈 하위영역 중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2). 그 결과 ‘자기규제 효능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이득이 되는 비교 및 해로운 결과의 왜곡’, ‘사회적 효능감’, ‘학업적 효능감’, ‘도덕적 정당화’, ‘신체적 운동에 관한 자기

표 2.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중다회귀 분석

예측변인	R	R ²	Adj. R ²	F
자기규제 효능감	.45	.20	.20	275.22**
이득이 되는 비교	.50	.25	.25	182.19**
사회적 효능감	.53	.28	.28	145.51**
학업적 효능감	.56	.31	.31	123.63**
도덕적 효능감	.57	.33	.32	105.92**
신체운동 효능감	.59	.34	.34	94.55**

효능감' 순으로 나왔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중 4개의 하위영역과 도덕적이탈의 2개 하위영역이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 있었다.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부적응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에 대한 예비적 탐색연구로 성별, 연령별 차이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척도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척도는 5개의 요인으로 그리고 도덕적이탈 척도는 3개의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각기 3개 (Bandura 등, 1996a), 1개(Bandura 등, 1996b) 요인으로 설명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들 기존의 연구에서 11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연령대가 비교적 좁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좀 더 넓은 연령대로, 즉 13세에서 18세에 걸친 청소년들에게 실시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 연령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영역을 보면 '학업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 '신체운동 효능감'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았다. 또 학년별로 보면, '학업적 효능감', '자기규제 효능감', '사회적지지 효능감'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효능감이 낮아지는 연령으로 이는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상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 본 이전의 연구 (이춘재, 박금주, 1994; Lee & Kwak, 1998)들과 일치되는 결

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효능감'과 '신체운동 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효과가 없는 영역이었다.

도덕적 이탈에서는 유해한 행동을 더 나쁜 다른 행동과 비교하여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하는 기제를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나, 책임감을 분산시키거나 전이시키는 것은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기제였다. 또 세 영역 모두에서 학년에 따라 점수가 높아져, 도덕적 이탈 기제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 역시 새로운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년과 진학할 학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학교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져 도덕적 이탈이란 고학년에서 더 높아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6학년과 8학년에 있어서 도덕적 이탈기제에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b)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으로 연결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년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도덕적 이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결과는 세 하위영역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효능감은 반사회적 행동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신체운동 효능감은 반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이외 다른 자기효능감 하위영역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영역들은 모두 반사회적 행동과 부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특히 이 중에서 자기규제 효능감이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요인이었다. 음주 약물 성행동 및 일탈행동과 같은 위험행동에 휩쓸릴 수 있는 유혹이나 친구의 압력에 얼마나 저항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신의 효능감이 반사회적 행동을 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규제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주는 것이 청소년기의 비행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발되었던 Bandura의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에 대한 측정도구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학년별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것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예비적 탐색연구이다.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이외의 학업성적, 학업스트레스, 부모관계 등의 여러 요인이 우울이나 비행과 같은 청소년기의 부적응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주는지에 관한 좀더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현재 분석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못한 좀 더 의미있는 결과들이 후속연구들에서 논의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곽금주(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이춘재, 곽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발달(I):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Andrus, B.C.(1969). *The infamous of Nuremberg*. London: Fravin.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available from A. Bandura, Stanford University).

Bandura, A., Underwood, B., & Fromson, M.E. (1975). Disinhibition of aggression through diffusion and dehumanization of victim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 253-269.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a).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s.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b).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andura (1998). Self-efficacy pathways to children depression. Unpublished manuscript.

Darley, J. M., Klosson, E. C., & Zanna, M. P. (1978). Intentions and their contexts in the moral judgements of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66-74.

Diener, E., Dineen, J., Endresen, K., Beman, A. L., & Fraser, S. C. (1975). Effects of altered responsibility, cognitive set, and modeling on physical aggression and deindivid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28-337.

Lee, C. & Kwak, K. (1998).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during adolescence. Presentation in 1998 conference of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elf-efficacy and moral justification (I): The developmental pattern

Keumjoo Kwak
Osan College

This study was examined to explore the difference of age and gender in self-efficacy, moral disengagement, and antisocial behavior. A total of 1191 students were administered multifaceted questionnaires measuring self-efficacy (Bandura, 1997), moral disengagement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and antisocial conduct (Kwak, 1995). A 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orthogonal rotation revealed a five factor structures in self-efficacy scale and a three factor structures in moral disengagement scale. The difference of age and gender were revealed in the subdomains of self-efficacy, moral justification and antisocial behavior. 'Self-regulatory efficac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to antisocial behavior. In compared with other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tailly explained and discussed.